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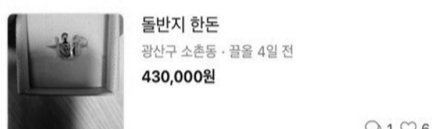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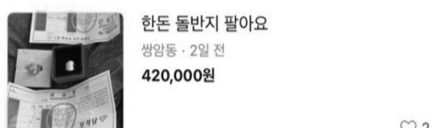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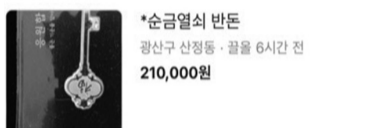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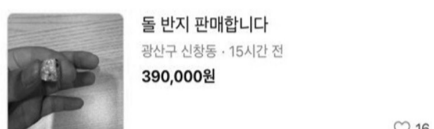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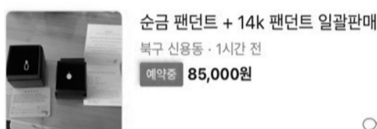
금값 연일 '고공행진'... '금테크' 관심 고조

1g당 11만원... 국제 시세 '최고치' 현물 구입·금 관련 ETF 투자 늘어 온라인서 개인간 중고거래도 활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kg짜리 금 최고가는 1g당 11만700원에 기록했다. 이는 전날보다 3.17% 오른 가격이다. 금가격은 지난 달 9만2000원대로 금시장이 열린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등 지정학적 위기로 연일 상승하고 있다.

금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한 달 새 급증했다. 이날 금 거래량은 19만5122g으로 지난 달 15일 6만7056g 대비 무려 190.98% 증가했다. 거래대금도 이날 212억8762만원을 기록, 지난 달 61억9951만원과 비교해 67.84% 늘었다.



금값이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금 및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개인간 금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제 금 가격도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장중 온스당 2400달러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달 2100달러선을 기록한 데 이어 한 달 새 200여 달러가 치솟은 것이다.

금값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 현물 투자 외 금 관련 ETF(상장지수증권)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콤 ETF체크를 살펴보면 이날 기준 최근 한 달 간 'HANARO(하나로) 글

로벌금채굴기업' ETF 수익률 16.6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에이스)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와 'ACE KRX 금현물' ETF는 각각 19.18%, 20.23%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 현물 거래 외 ETF를 통한 금 관련 투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서 금 현물을 거래할 시 금 시세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며 은행을 통한 골드바 구매는 부가가치세 10%에 수수료 5%가 더 붙는다. ETF의 경우 현물 인출 시에만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발생하며 계좌를 통한 매매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더불어 수수료도 없는 개인간 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인간 금 거래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당근마켓 앱에서 '순금', '금', '금팔찌', '돌반지'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금을 사고판다는 게시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판매글이 올라온 대부분의 금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돼 '예약중(거래 이뤄지기 전 구두계약 상태)'이 걸리기도 했다.

당근마켓은 지난 2022년부터 골드바, 금고, 팔찌 등 금 제품의 판매를 100만원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금 제품의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간 금 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로 인한 '3자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3자 사기란 판매자에게 거래 의사를 밝힌 뒤, 동시에 제삼자에게 물건을 판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입금하도록 해 판매자의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송정동 유명 ‘광카롱’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에 광주 송정동의 인기 마카롱 맛집인 ‘광카롱’이 16일 신규 입점했다. 광카롱에서는 조개모양이 시그니처인 ‘조개롱’과 필링이 가득한 ‘똥카롱’이 유명하며 특히 20여가지 종류의 다양한 마카롱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마카롱 뿐만 아니라 선물용으로 좋은 조개롱 케이크, 똥카롱 케이크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경총, 북구 산업현장 맞춤형 취업 지원

긱잡 매칭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첨단, 본촌 등 광주지역 대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북구 소재 기업들의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애로를 해소하고자 광주 북구청과 ‘북구 산업현장 밀착형 긱잡 매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우수인재 확보로 인한 고용창출형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고용 미스매치는 지속 발생하는 문제로 이번 ‘북구 취업매칭 지원’을 통해 광주경총에서는 북구에 소재한 우수기업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동영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알선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워라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채용계획에 맞춰 청년, 장애인 등 미취업자를 선별해 현장 견학 및 채용설명회 등 추진으로 구인·구직자간 고용 미스매치를 최소화한 양질의 취업연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총은 이달 말까지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또는 총괄사업본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우리 지역은 첨단, 하남 등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여러 산업단지에 우수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의 노후화된 이미지로 인해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산업이 밀집해 있는 북구 지역 소재의 기업들에게 맞춤형 취업 매칭을 지원하고 지역 구직자에게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창업기업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5년만에 지역기업 상장
광주TP, 맞춤 지원 결실

광주 소재 창업기업이 5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에 따르면 ‘주에스오에스랩’은 2016년에 설립된 GIST 학생창업기업으로 지난 11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달 중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밝혔다.

지역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지난 2019년 12월 (주)피피아이 이후 5년 만이다. 광주TP는 (주)에스오에스랩에 지역 출자펀드(대학창업뉴딜펀드, 기술지주 뉴딜펀드) 계정으로 투자를 지원했으며,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했다.

또 지역 내 상장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와 함께 약 20개의 지역 내 상장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상장비용 및 전문가컨설팅 등 맞춤

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약 20개의 코스닥 상장후보기업군 중 매년 1개 이상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와 함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집테크노파크 원장은 “에스오에스랩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광주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자들의 시각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지역 내 코스닥 상장기업 배출지원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전남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근절 강화

보증 절차 간소화 등 실시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보증브로커 근절을 위해 나섰다.

16일 전남신보에 따르면 고금리 등 금융환경악화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역이용해 보증을 알선하고 접수

대행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성행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 보증브로커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지원 불법 알선,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 또는 위·변조, 보증 신청기업에게 직원 사칭, 그밖에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

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다.

이에 전남신보는 재단 직원 및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안전 교육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한 캠페인 실시 등 다방면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로커 개입 없이 누구나 손쉽게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박소영 기자

중진공 호남연수원 ‘CEO 명품아카데미’ 개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호남권역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5회 CEO 명품아카데미’를 개설, 오는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CEO 명품아카데미는 중소벤처기업 CEO 역량 강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되는 명품연수로 지난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24기까지 총 1153명이 수료한 호남권 대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10주간 진행되며 ‘육각형 리더, 미래를 이끈다(Hexagon Leader, Lead the Future

’를 주제로 다가오는 불확실성 시대에 경영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 리더십, 전문성, 트렌드 대응력, 소통, 네트워크 등 육각형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만을 엄선해 구성했다.

5월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홍준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김재원 (주)엘리스 대표,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와 함께 경영자의 고민을 풀어 나갈 예정이다.

또 호남연수원-광주과학기술원 GTMBA 협업 연수, 전국 CEO 명품아

카데미 합동포럼, 제주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명품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브릿지 리더십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등 후속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비는 1인당 100만원이며, 연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패밀리기업(100%), 중진공 청창사 동문·입교기업(50%), 과거 CEO 명품아카데미 수료기업(30%), 소기업(30%) 활동을 비롯해 1개 기업에서 3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 1명은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작성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호남연수원(062-250-3021, 3024)으로 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